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묘사한다.

-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요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18 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 **히 1: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 **막 12:1-8...**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 **요일 5:18**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 **요일 4:9,10**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모노게네스 (MONOGENES)

“독생자”가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이다.

모노=유일한

게네스= 종, 가정, 민족, 자손, 종류를 뜻한다.

그러므로 “**유일한 자손**”, 즉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신약에 9 번 나오며, 요한복음에서만 다섯 번 언급이 되는데 다섯 번 모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같은 가족이시기 때문에, 같은 신성의 본성을 소유하신다.

모노게네스가 언급된 다른 4 곳은 다음과 같다.

- 눅 7:12 -나인성 과부의 독자
- 눅 8:42 -야이로의 하나 밖에 없는 딸
- 눅 9:38 -변화산 후 예수님께 온 간질하는 아이 (역시 독자)
- 히 11:17- 이삭 (아브라함의 독자)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나왔으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아들로 보지 않으셨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독생자’였다. 그리고 창 22:2 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을 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미 쫓겨난 후였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유일한 분이시므로 본성에 있어서는 신성을 가지셨고 성육신 하실 때 신성 위에 인성을 입으신 구세주이시다.

- 히 1 장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다루었고, 히 2 장은 그분의 인성을 다룬 장이다.
- 빌 2:5-7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다루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인성을 다룬다.
- 눅 1:32, 35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지극히 높은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 요 10: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 마 3: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 눅 9: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 마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요일 5: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죄에 대한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는가?

아니면 여호와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리안주의)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뿐일까? (은유적, 상징적, 혹은 연극적[역할]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었다고 하거나 은유적 혹은 상징적 표현으로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주장들은 한결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참된 관계를 파괴한다. 이 주장들이 말하는 아들의 개념은 이름뿐인 아들이다.

아리안주의(아들이 피조물이라는 주장)는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신성을 부인한다. 그리고 삼위일체가 주장하는 아들의 개념은 하나의 역할뿐이므로 참된 아버지와 참된 아들의 실제적인 관계를 파괴한다.

아리안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유일신 사상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된 존재로 전락시켰고, 삼위일체주의는 영원히 공존하는 세 신성의 존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을 희생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세 존재의 하나님들이 연극을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었다는 주장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성경은 신성의 아버지로부터 신성의 아들이 출생하였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삼위일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연극이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사이에 존재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들은 단지 잔인한 거짓 장난질에 불과한 것이다.

민 23:19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심

- **요 7:29** 나는 아노니 이는 ¹내가 그에게서 났고 ²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 **요 8:42**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¹하나님께서로 나서 ²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 **요 16:27, 28**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¹ 내가 아버지께서로 나와서 ²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로 가노라 하시니
- **29 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즉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사건은 비유가 아닌 실제 사건이다.)
- **요 17: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¹아버지께서로 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²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 **요 18:37**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¹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²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첫 사건)과 세상에 오신(둘째 사건)것에 대하여 뚜렷한 구별을 두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인정하였다.

- 시 110:3 여호와께(하나님 아버지)서 내 주(아도나이: 그분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너는 뿔기세텍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 마 22:44 예수님께서서는 이 절을 사용하심
- 행 2:34 베드로도 오순절 때 언급
- 고전 15:25 사도 바울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이 절을 인용하였다
- 사 49:1-6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절들이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종이고, 그분의 구원자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성육신 이전에, 온 우주 창조 사역 이전에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 시 2:7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 히 1: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 히 5:5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 잠 8:24, 25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내가 세움을 입었나니…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잠 8:22~30)다.” (부조 34)

어떤 이들은 잠언 8 장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엘렌 화잇은 잠언 8:22-30 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에는 24 절과 25 절이 인용되지 않았지만 다른 곳(*Signs of the Times* Aug 29, 1900, *Review and Herald*, April 5, 1906)에서 화잇 여사는 24, 25 절까지 직접 인용하시면서 이 절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派生)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는 시대의 소망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독생자가 아니시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시대의 소망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초태생(처음 난 자)을 주께 바치는 일은 아주 옛날에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직역: 처음 난 자)를 주기로 약속하셨다.” (소망 51)

신학자들은 잠언 8 장이 지혜를 1의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핑계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 고전 1:24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 고전 1:30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 골 2: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느니라

창조 사역에 신성의 두 분,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셨다.

잠언 30: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예수님은 성육신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

- 잠 30:4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 단 3:25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직역: 하나님의)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 사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 요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참된 신성의 출생으로 무엇을 물려 받으셨는가?

- 골 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 요 5: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 히 1:3,4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난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아버지로부터 나왔는가?

여러 주장들이 있다.

주장 1: 천주교가 말하는 영원적 출생(천주교의 신비스러운 해석)의 교리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독생자의 개념과 예수님이 영원히 공존하는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라는 개념을 합성시킨 교리이다. 영원적 출생은 곧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아들을 영원토록 출생하고 있다는 강신술적인 해석이다.

¹ 추상적 개념이나 인간 이외의 존재인 관념이나 무생물(無生物) 혹은 무인격적(無人格的) 대상에다 인간적 또는 생명적 특성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수사적 방법이다.

주장 2: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실제 아들이 아니고 삼위일체 세 분중의 한 분으로써 성육신 하셨을 때 아니면 부활 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선지자 화잇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러한 강한 말씀을 하셨다.

“또 한 가지 위험한 오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리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교리이다. 이 이론은 성경을 민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주께서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 당신의 신격(神格), 당신의 선재성(先在性)**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것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품을 수 없는 견해이다. 그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인류의 관념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믿음을 위태롭게 만든다. 그런 사상은 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을 설복시키는 것 역시 어렵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영감적인 성경의 증언을 부인할 것 같으면 그 점에 대하여 그들과 토론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쟁투 524)

어떤 이들은 위의 말씀이 오직 유니테리언 교도들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할지 모르나 위의 말씀은 유니테리언 교도들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다. 선지자께서는 “이 이론은 성경을 민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믿고 있다고 경고하시면서 이 사상은 극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다.

주장 3: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세 분의 하나님들께서 어느 시점에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또 성령의 역할을 맡았다는 주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태초에”, “상고에 태초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이므로 “영원”이라는 공간에서 “산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아버지의 품에서부터 나오셨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이심

-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요일 4:10**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두 번의 출생

요 3:6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인간을 위하여 두 번의 출생이 있음을 지적한다.

인간을 위한 두 번의 출생

인간은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육적인 몸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인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적인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자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삶,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인간의 부모가 육의 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의 몸으로 태어난 인간은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 3:6)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종살이 하는 육에 따라 살아간다. (롬 8:1,2, 7:23) 그러나 다시 거듭난 후에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롬 8:4)한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 출생하심

하나님 아버지는 영(요 4:24)이시므로 곧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역시 선천적으로 하늘에서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고후 3:17)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난 자이시기 때문에 죄를 모르셨다. (요일 3:9, 고후 5:21)

- **요일 3:9**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 **요일 3:8**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여자에게서 나서서” (갈 4:4) “육신이 되”(요 1:14)신 후 “육신에 죄를 정하”(롬 8:3)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요일 3:8)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로써 영적인 본성으로 나신 분이시고 베들레헴에서 성육신 하셨을 때 인간의 몸을 빌려 신성(영적인 본성)에 육신을 입으신 분이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인성 가운데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셨다. 당신의 성육신(成肉身)을 통하여 주님께서서는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칭호를 얻으셨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5)고 말하였다. 인간의 아들이면서도 주님께서서는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셨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서는 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으로 출생하심으로 인류와 연분을 맺으셨다.” (1 가려 226,227)

아들은 나신 분이 피조 혹은 창조된 분이 아님

피조물, 혹은 창조물은 창조주(자)가 자기와는 전혀 다른 품질의 물질로 무엇을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조각가는 조각품을 만들 때 자기의 물질과 전혀 다른 물질들인 대리석, 놋, 혹은 진흙 등등으로 그 조각품을 만든다.

아들은 부모님에게서 출생할 때 부모가 가진 같은 물질, 성질, 혹은 본질/본성을 갖고 나온다.

인간 아버지에게는 인간 자녀들을 있고; 신성의 아버지에게는 신성의 아들이 계신다.

성경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고 하며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이다.

성경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대 근원 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

- 고전 8:4-7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 엡 4:6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딤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 계 21:22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출생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분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동일한 신성의 본질/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에 신성의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신다.

요 1: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헬라어로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에 “하나님과” 앞에 정관사 “그”가 적혀있다. 즉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두 분, “말씀과” “그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의 신분은 “그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과는 다르지만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신분이 아버지와 다르지만 본질/본성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이다.

신분과 질(質) 혹은 본질/본성의 차이를 아담과 하와의 상황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다음의 문장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자. “태초에 인간 여자가 있었고 여자는 그 인간 남자와 함께 하였으며 여자는 인간이었다.” 하와는 아담과 함께 있었지만 그녀는 아담이 아니었다. 그러나 역시 그녀도 인간이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오셨으므로 그분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같은 신성을 아버지만큼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 히 1:6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 마 14: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 요 5: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버지와 자녀들

- 우리의 유업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유업은 그분의 아버지 안에 있다.
-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를 닮으신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다. (요일 3:2)
-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는다. (계 3:21)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아버지와 나이가 같지 않다고 해서 그분의 신성이 덜 있으신 것이 전혀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 14:28 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의미는 나이가 많다는 의미이다. 인간 아들이 인간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어리다고 해서 본성이 더 낮은 차원의 인간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주의 왕은 저희 앞에서 **당신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보이시려고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보좌 주위에는 “만만이요 천천”(계 5:11)인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모였는데 수종드는 자들이요 신하로서 가장 높은 저들은 하나님의 어전에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다.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도모(圖謀)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였다.**” (부조 36)

그리고 성경은 출생한 아들을 출생 전에도 존재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가 있다.

히 7:9,10 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가 아직 출생하기도 전에 십일조를 바쳤다고 성경이 말한다. 레위의 시작은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의 할아버지를 낳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無)에서 창조되어 시작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삼위일체주의는 예수님은 창조되지도 않았고 출생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아들도 역시 영원하다고 한다.

미 5:2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영원의 시기)에니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유일한 분이시다.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요 1:1, 2)다.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意圖)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다.**”(부조 3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이는 천사들처럼 창조함을 받은 아들이 아니며, 또 용서받은 죄인처럼 입양된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대로 출생하신 아들이며 또 그분의 위엄과 영광의 광채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신성의 완전하심에 하나이신 분이시다.**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었다.” (영문시조, 1895 년 5 월30 일자)

참고: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성육신 하셨을 때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서 나오신 것은 기적이였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 기적을 믿는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사건 역시 인간의 영역과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오묘이므로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타난 (신 29:29 참조) 사실-즉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 모든 신실한 기독교인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